Labour of Love, revisitedU

EXHIBITION

2011 / 11 / 16

ART IN CULTURE

디지털시대에 떠오르는 아마추어리즘

11. 12 ~ 12. 18
아르코미술관(http://www.arkoartcen-
ter.or.kr/nuri/bbs/bbs.php?pidx=1319419627406&didx=3)



메리 메팅리 <Waterpod TM> 2010



존 코어스+모간 레비 <ALL-SALT> 2010

예술가의 예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들의 프로젝트들은 언뜻 실제적인 효용성이 없는 쓸데없는 행위처럼 보이지만, 사실 그 안에 기술과 도시, 과학, 환경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.

대표작을 살펴보면, 송호준은 실제로 2012년에 우주에 쏘아 올리기로 계약이 체결된 오픈소스를 이용한 인공위성 프로젝트<-OSSI(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)>를 선보인다. 메리 메팅리는 도시계획자들은 물론 건축공학자, 생태 연구자까지 동원하여 폐선 안에 자족적인 생활환경 시스템을 구축, 실제로 6개월 동안 생활했던 모습을 영상과 자료로서 제시한다.
버려진 하수물을 정제하여 약 성분만을 뽑아내는 일종의 의학적 프로젝트를 진행한 존 코어스와 모간 레비, 일반 가정에서 가져온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 우쿨레레를 제작하고 다시 재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프로젝트를 실행한 노부아키 다테의 작업도 만나볼 수 있다.

전시 기간 중에는 덴마크 출신의 작가 베릿 뇌르가드가 일반인과 함께하는 책 만들기 워크숍 <(당신이 원한다면)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>와 필름 위에 직접 드로잉을 하거나 다른 재료를 붙여서 애니매이션을 만드는 <다이렉트 애니매이션 워크숍>, 신청을 통해 최면술을 체험할 수 있는 양아치 작가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. 이번 전시의 기획에는 신보슬(토탈미술관 큐레이터)과 일본의 독립 큐레이터 미야 요시다(Miya Yoshida)가 공동으로 참여했다.

참여작가 매튜 브레들리(Matthew Bradley), 존 코어스+모간 레비(Jon Chors+Morgan Levy), 시네마 꼬빵(Cinema Copains), 노부아키 다테(Nobuaki Date), 모리츠 페어(-Moritz Fehr), 메리 메팅리(Mary Mattingly), 모무스(Momus), 남화연, 베릿 뇌르가드(Berit NøøRGAARD), 송호준, 토루 코야마다(Toru Koyamada), 자비에르 텔레즈(Javier Téllez), 양아치

부대행사

(당신이 원한다면)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
워크숍 진행: 베릿 뇌르가르드

일시: 11. 4(금) ~ 6(일) 오후 1:00-5:00

장소: 토탈미술관 아카이브룸

참가인원: 10~15명

다이렉트 애니메이션 워크숍

워크숍 진행: 시네마 꼬빵 (민쩨 트룸샤이트+아르네 헥터)

일시: 11. 18(금) ~ 20(일)

장소: 스페이스셀

참가인원: 10~15명

양아치 작가의 퍼포먼스 : '미래에서 온 두 번째 부인, 최면술사의 경우'

일시: 11. 12(토), 11. 19(토), 11. 26(토), 12. 3(토), 12. 10(토) 오후 2시부터 4회

장소: 아르코미술관

참가인원: 1일 당 4명 (신청: 010-3038-4882)

*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

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

www.arkoartcenter.or.kr(http://www.arkoartcenter.or.kr/)

02)760-4850~2